

memorial museum

다들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부모, 형제, 친구 등 대상은 모두 다르겠지만 질문을 읽고 마음 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다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인간은 살아서 흔적을 남기고, 죽어서 기억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떠나보낸 누군가를 가슴속에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떠오르면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좋은 흔적의 기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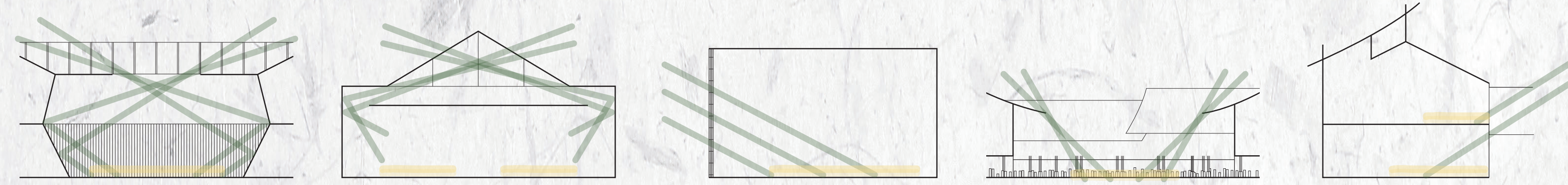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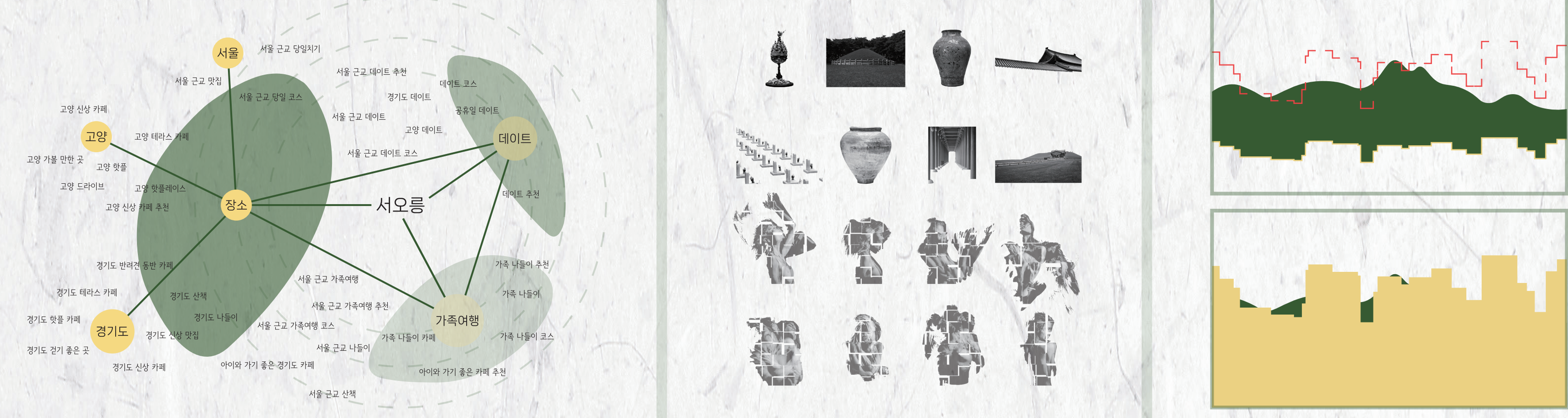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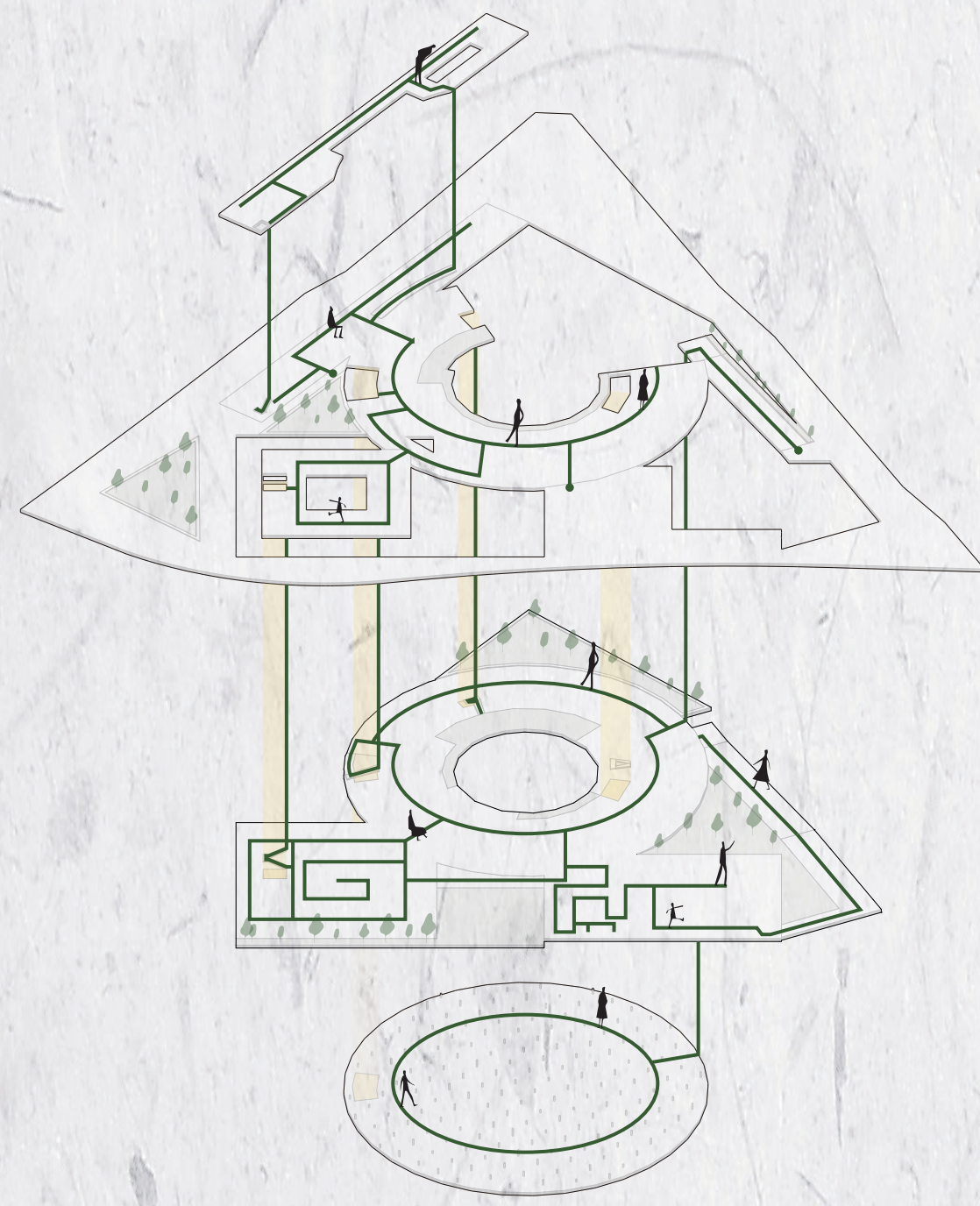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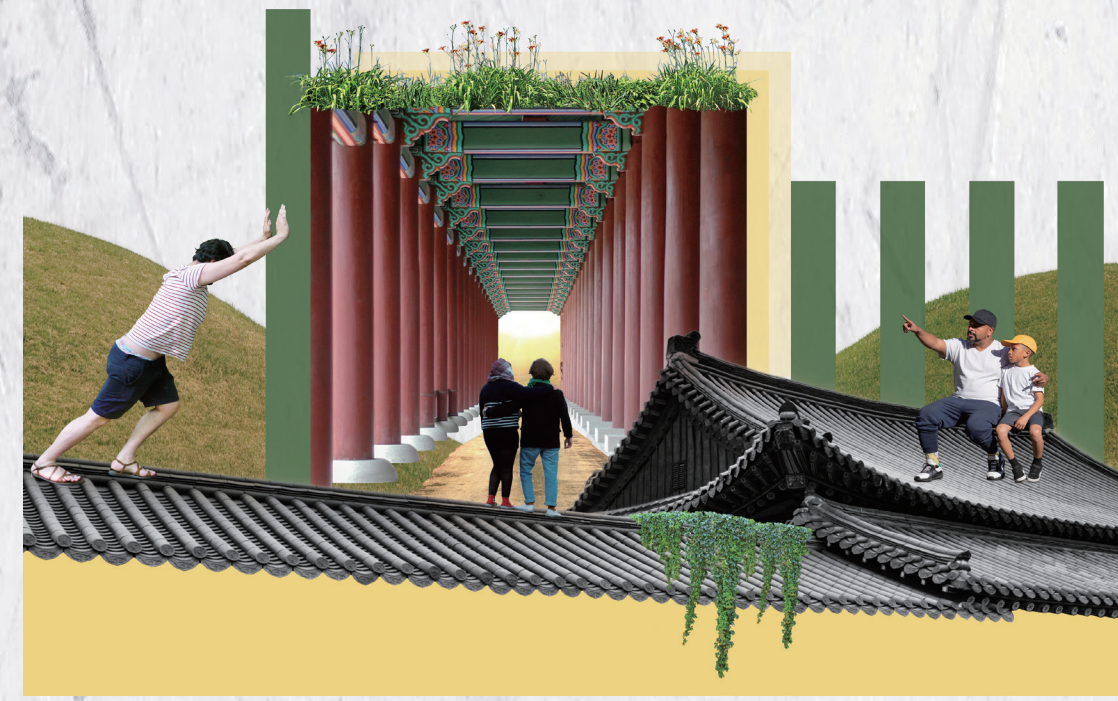
기억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생각한다면 흔적을 유물, 관련 문화재, 역사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각자의 경험을 이용해서 생각해 볼시다. 누군가는 슬픔, 그리움, 외로움 등 비수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감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을 공간에 담아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은 뮤지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기억에 대한 뮤지엄으로 공간을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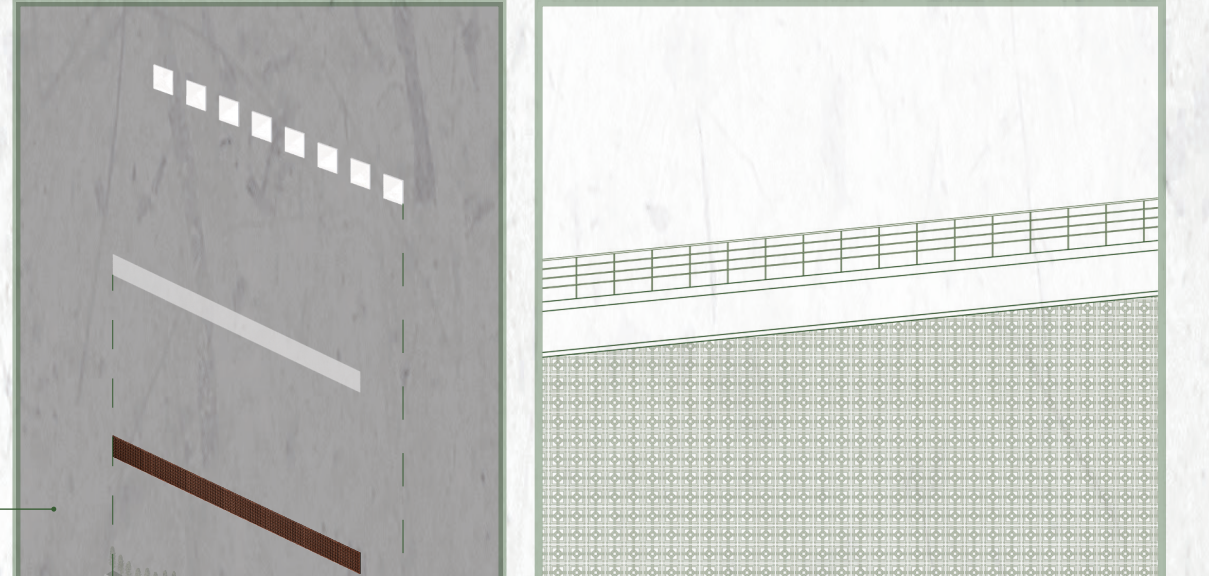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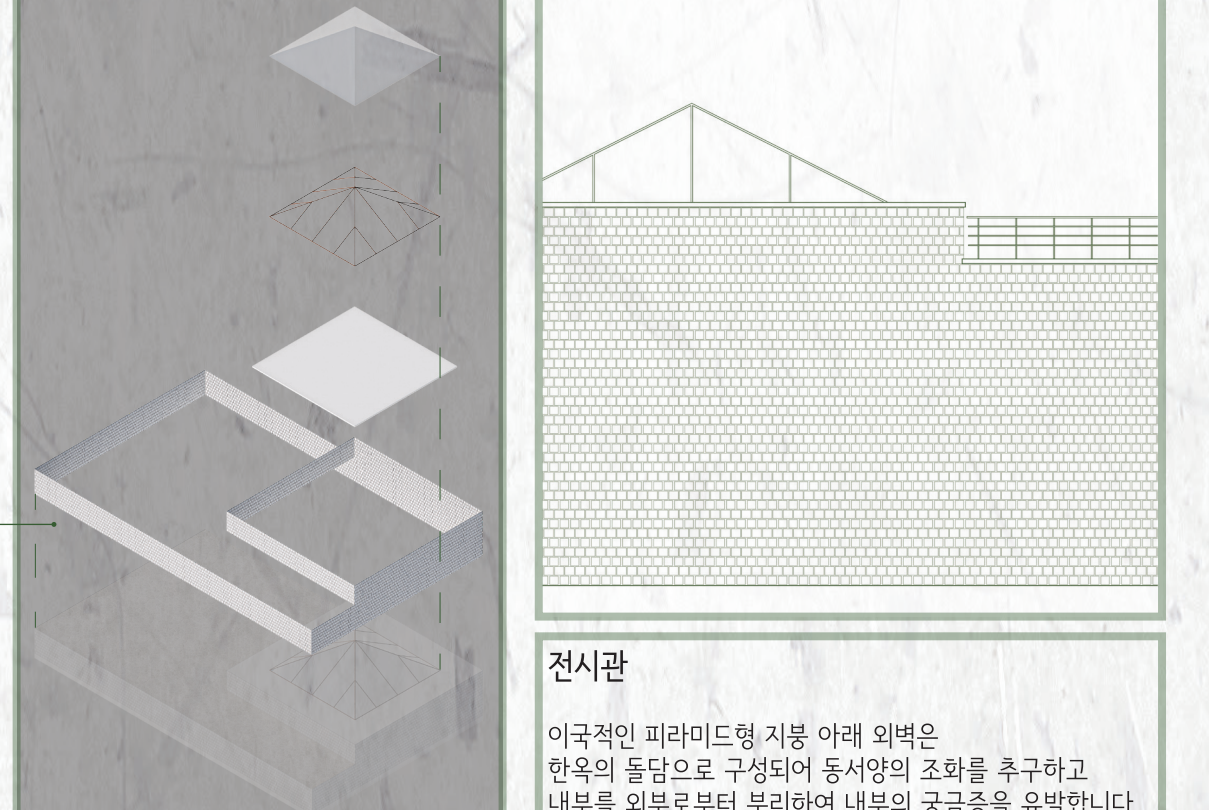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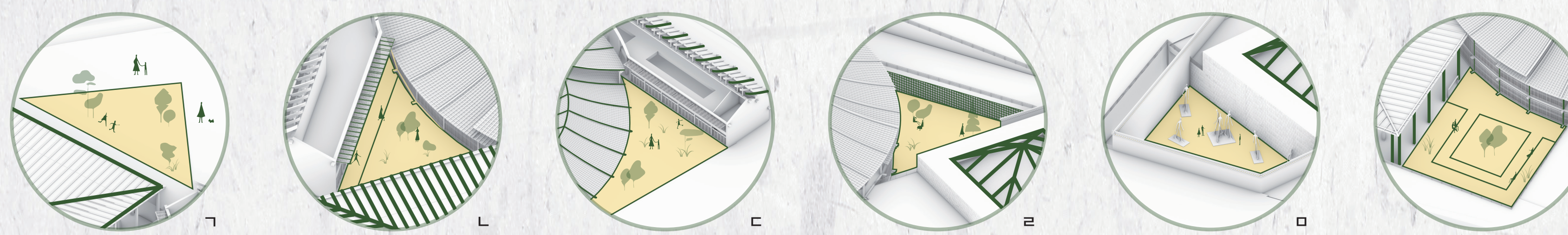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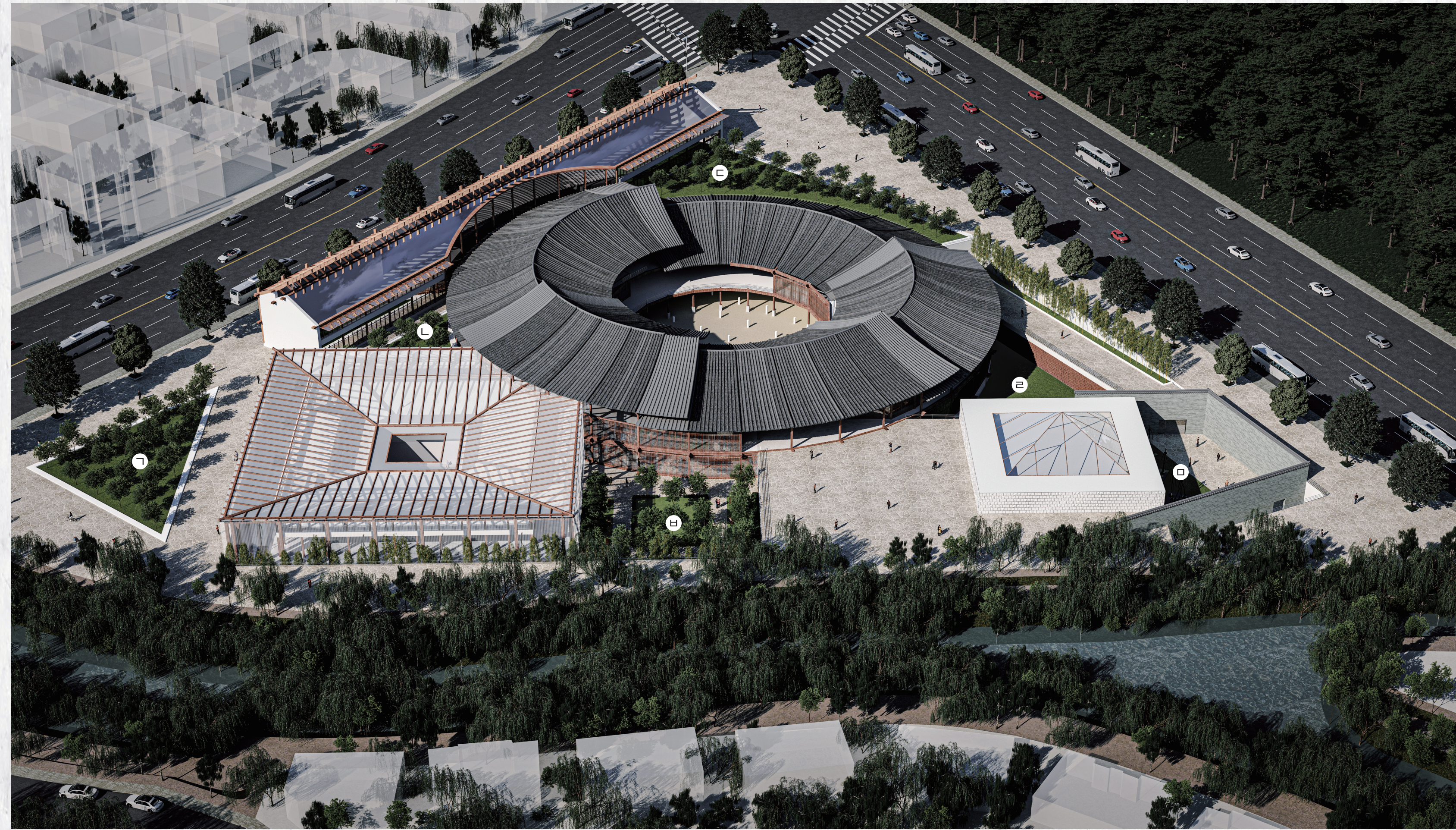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시오름에 대한 경관이었습니다. 장년 노년의 중심이었던 장흥의 이슈처럼 고층의 건물이 시오름의 경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오름의 아름다운 경관을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층만 지상에 남기고 나머지 층의 지하화를 통해 시오름의 경관을 사이트 일대에서 최대한 많이 담아내고, 매스 역시 시오름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빛을 다루는 방법과 한국의 구조 및 특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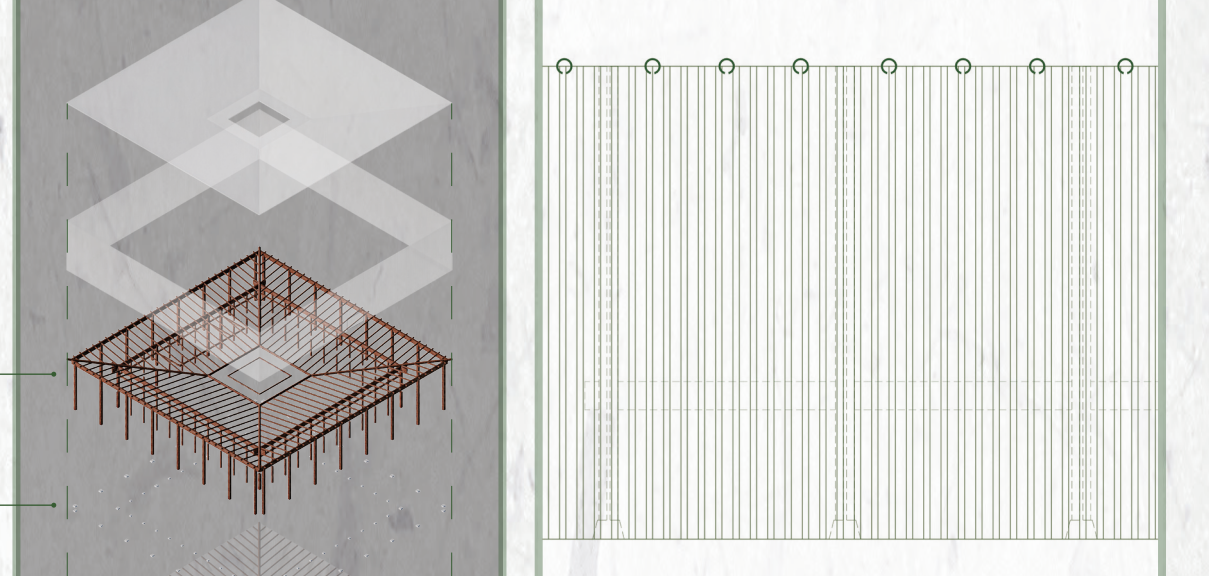
방문객들은 한국의 역사를 곳곳에서 느끼며 일방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스스로 사색하며 시오름에 대한 가치와 역사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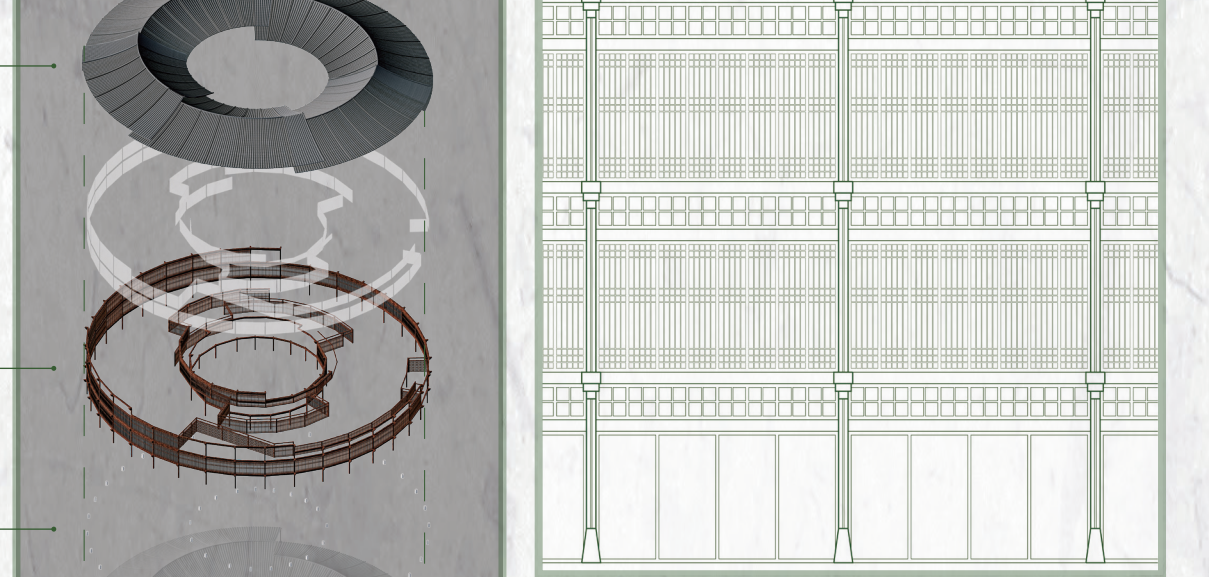
명상관 전시관 역사관 기억관 감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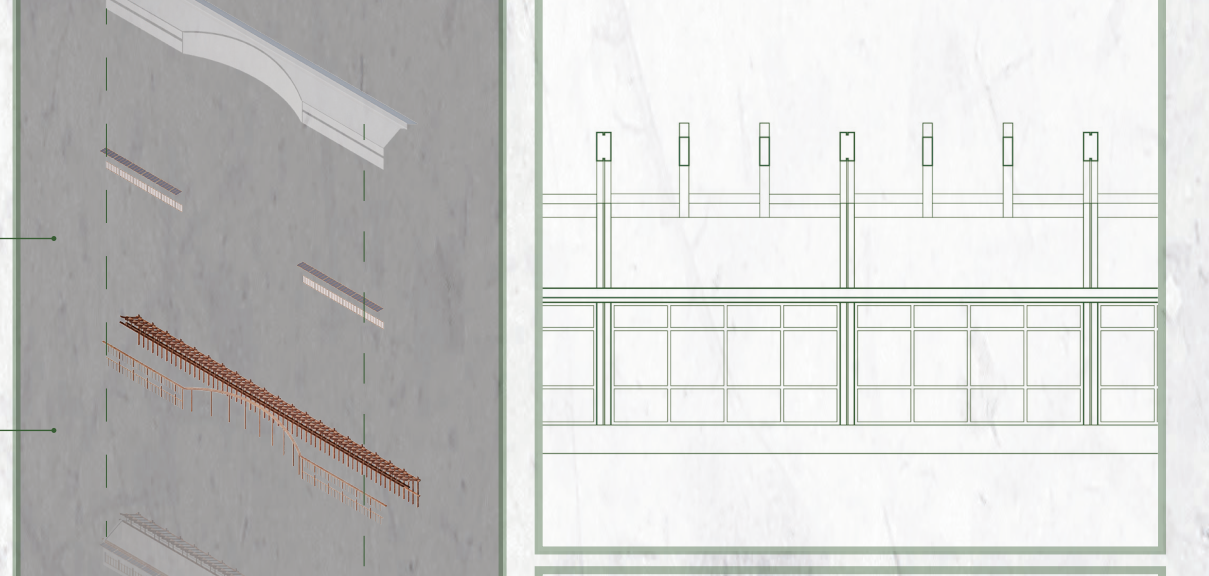
전시관 역사관



명상관



기억관



감상관

